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달라집니다’, 안전부터 편의까지 공공체육시설 대대적 개선

- '2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안 2,558억 원 편성으로 2.7배 확대, 국민 체감형 시설 개선
- 시설 안전 강화, 야외 지붕 설치, 관람 편의 확충 등, 새로 짓기보다 기존 시설 내실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168.4%(1,605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예산 확대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짓기보다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해 예산 투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간이 체육시설 제외) 10,753개소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약 70%에 달하고, 개보수 수요 역시 매년 급증(2023년 381건 → 2025년 484건)함에 따라 누적된 정비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① 안전 강화, ② 기후변화 대응, ③ 이용 편의 및 시설 활용도 제고의 3대 핵심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국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긴급 안전 국비 지원을 50% → 70%

문체부는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안전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더욱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인조잔디 축구장 등에 스프링클러 등 온도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청소년 선수와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별 국비 지원률: 30%(10년 경과 노후), 70%(긴급안전/2026년까지 50%), 70%(장애인편의시설)

② 폭염·우천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야외체육시설을 전천후 공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등으로 야외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에도 대응한다.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등 실외 체육시설의 지붕형 막구조물 설치를 지원해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에 지붕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편의성은 높이며, 야외 공간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체육공간으로 개선한다.

③ 운동도 관람도 더 편리하게 경기장 활용도까지 높인다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국민뿐 아니라 스포츠를 관람하는 국민의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프로축구 300만 관중 시대에 맞춰 경기장 관람석·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여성화장실과 가족 맞춤형 공간 등을 확충한다. 노후 방송설비 교체 등도 지원해 경기장을 찾는 국민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아울러 전국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인다. 축구 경기가 열릴 때만 이용되는 시설에서 벗어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물론 대형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성능과 이용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202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0월

까지 공모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경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 건강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시각으로 공공체육 시설 투자를 과감히 확대”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체육국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장	석진영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신철안 (044-203-3138)

